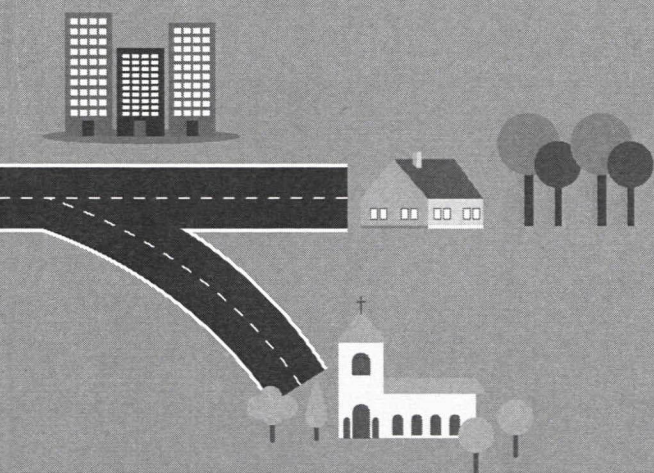


팜 플렛	
등록 번호	10000 56390
등©국회도서관©록	

PAMP1000056390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 일 시 : 2017년 12월 28일(목) 15:00-17: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김성태
- 주 관 :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 주제발표

발표 1 강순봉 교수
안전운전 태도가 교통문화를 만든다

발표 2 장재민 연구원
선진교통을 위한 우리의 자세

발표 3 김종주 교수
4차 산업혁명 ICT환경변화에 따른
한국문화 관광택시 사업 다각화 방안

■ 토론자

좌 장 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토론자 방대환

토론자 연구원 장재민

토론자 교통안전공단 수석위원 권기동 박사

토론자 Tnews 발행인 김종주 교수

토론자 교통안전클럽 강순봉 교수

일 정 표

1부 정책토론회

[제목: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토론회]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3. 내빈 소개
4. 개회사 및 축사
5. 주제발표
 - 가. 안전운전태도가 교통문화를 만든다 (강순봉 교수)
 - 나. 선진교통을 위한 우리의 자세 (장재민 연구원)
 - 다. 4차산업혁명 ICT환경변화에 따른 한국문화 관광택시 사업 다각화 방안 (김종주 교수)
6. 토론
 - 토론자 : 방대한
 - 토론자 : 장재민(연구원)
 - 토론자 : 권기동박사(교통안전공단)
 - 토론자 : 강순봉교수(교통안전클럽)
 - 좌 장 : 김세연(선진교통문화연합회)
7. 토론회 종료 및 기념촬영

2부 2018 선진교통문화연합회 발대식

1. 연합회 구성현황 보고
2. 임명장 전수 (중앙임원, 지회임원 등)
3. 선서
4. 선진교통문화 퍼포먼스
5. 2부 행사 종료

개 회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대중화된 지도 벌써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안전 의식은 국가의 자동차산업 위상과 교통인프라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도 4천여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약 12조 원으로 연간 GDP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교통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안전시설과 장비를 보다 확충해야 하고, 법률과 제도 역시 정비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 확보방안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급증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시민단체의 역할이 공조를 이뤄야 합니다. 아무쪼록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를 비롯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성태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정치호 회장입니다.

저희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김성태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바야흐로 자동차 2,2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6위의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 사망률은 OECD 주요 가입국에 비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은 습관이며, 운전대만 잡으면 폭군으로 변하는 잘못된 습성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다거나 법규에 맞추어 운전하면 타운전자로부터 온갖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불법운전을 하더라도 차량운행을 물 흐르듯이 진행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교통문화로 가기위한 가장 시급한 것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며 이러한 정직한 교통의식이야말로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첫째가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통전문가와 자동차운전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은 교통정책의 잘못도 한몫하고 있고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여 대형 참사를 당하는 현실도 긴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주차장 확보나 소방도로 확보 등 법에서 정한 것만 지켜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운전자의 의식을 바꾸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롭게 선진교통문화를 시민들로 하여금 당연히 받아들여 법을 지키는 것이 각자에게 편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사)선진교통문화연합회 회장 정 치 호

축 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송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님과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 하시는 협성대학교 장재민 교수님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김종주 교수님 그리고 교통안전클럽 강순봉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6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중교통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서울 전 지역을 구석구석 연결하는 지하철과 동일요금으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시스템 등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진교통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으로 OECD 평균 5.3명의 1.8배 수준이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 비율도 40.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 위권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시대의 새로운 선진교통문화의 핵심인 시민의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을 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제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희경

축 사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국회의원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통의 발전과 함께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있어서 교통은 우리몸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자동차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라는 부작용도 함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개인의 소중한 생명을 넘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인재입니다.

현재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국민들의 법규준수의식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추세는 이어가고 있으나, OECD 주요 가입국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범국민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통질서 위협요인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공동의 협력체제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전은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지킬 때 보장됩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선진교통,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고견을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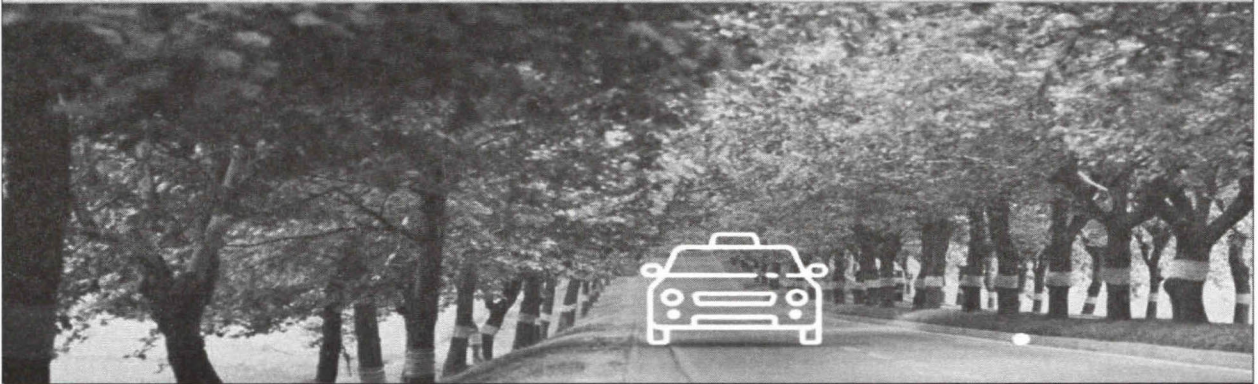
2017년 12월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용주 올림

운전태도가 교통문화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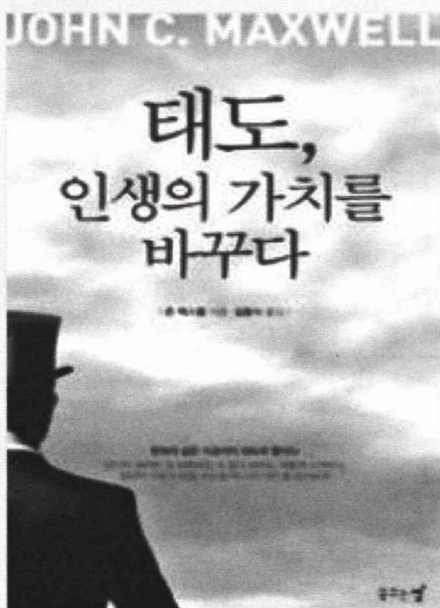
강 순 봉

운전태도가 교통문화를 만든다



TTSC 교통안전클럽

태도(Attitude, 態度)



-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태도의 합이다.
- 태도의 변화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존 맥스웰)

TTSC 교통안전클럽

100점짜리 인생,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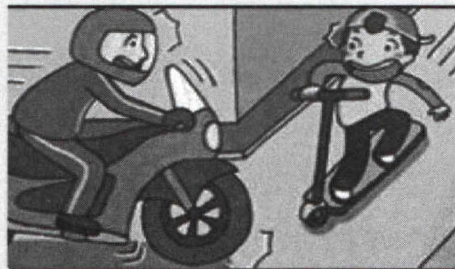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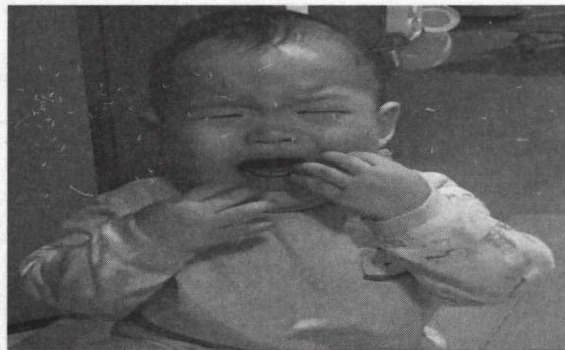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Love $12 + 15 + 22 + 5 = 54$ 점
- Money $13 + 1 + 14 + 5 + 25 = 72$ 점
- Money $13 + 1 + 14 + 5 + 25 = 72$ 점
- Knowledge $11 + 14 + 15 + 23 + 12 + 5 + 4 + 7 + 5 = 96$ 점
- Hard work $8 + 1 + 18 + 4 + 23 + 15 + 18 + 11 = 98$ 점
- Attitude $1 + 20 + 20 + 9 + 20 + 21 + 4 + 5 = 100$ 점

3

TSC 교통안전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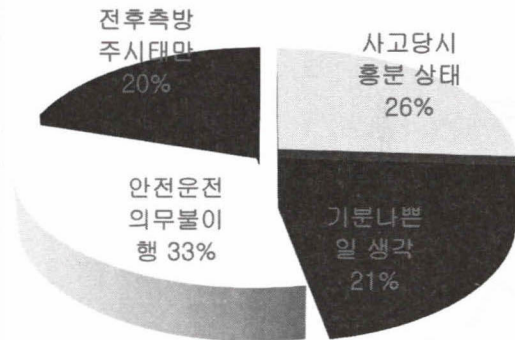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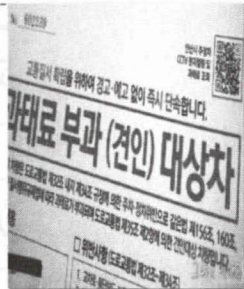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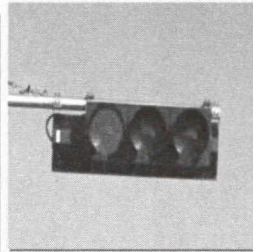
태도의 의미



4

TSC 교통안전클럽

교통규칙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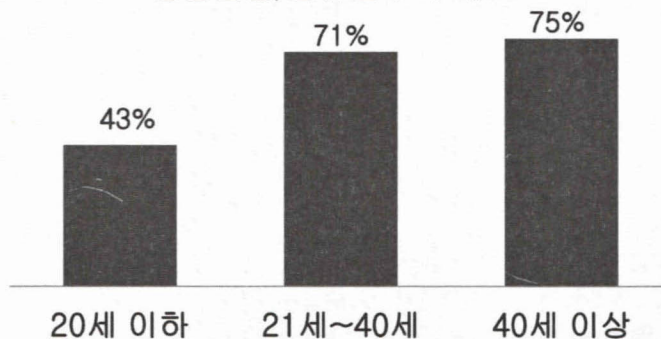


5

TSC 교통안전클럽

운전태도는 변할까?

생명존중/법규준수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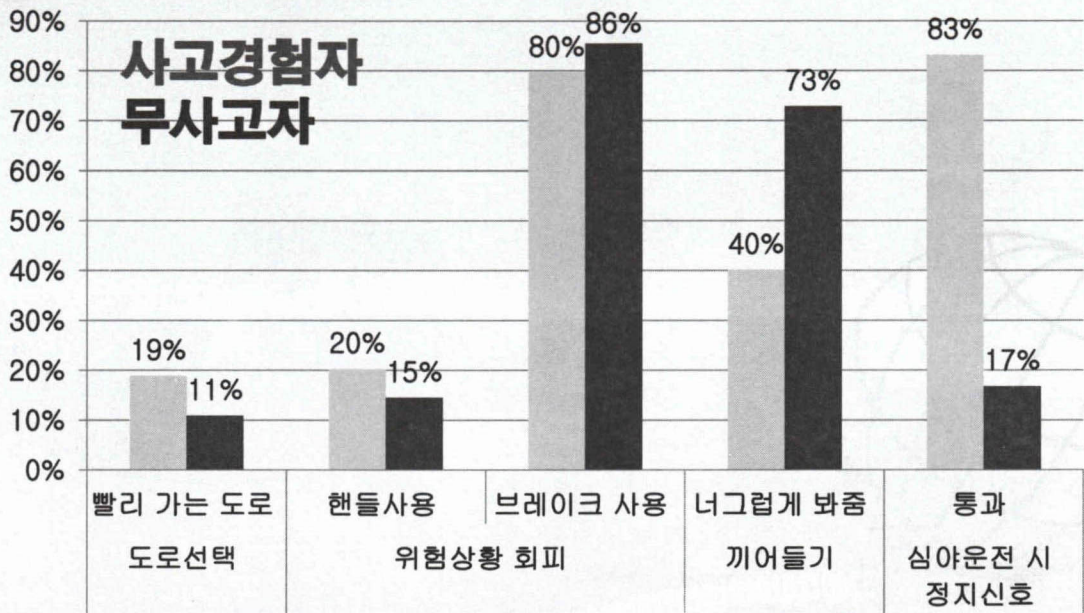


- 20대 운전자, 50~60대보다 사고율 2.6배 높아(경향신문 2015.10.12)
 - ✓ 부양자 없는 사람(25~29세) 사고↑
 - ✓ 양친, 처+양친, 처+자녀, 처+자녀+양친↓
 - ✓ 안전운전자·교통안전관리자↓

6

TSC 교통안전클럽

상황별 운전자 태도



7

TTSC 교통안전클럽

직접요인1: 정보획득 결여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면 교통사고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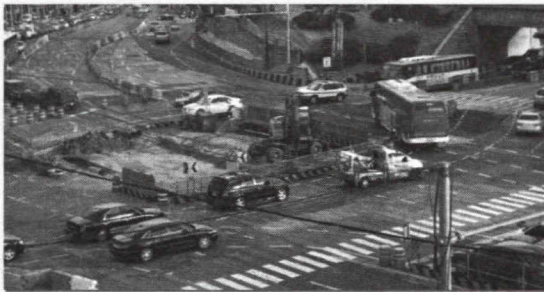
8

TTSC 교통안전클럽

직접요인2: 사태 예측의 갭



객관적 사태(외적환경)과
주관적 판단(예측)에 갭이
생기면 교통사고



9

TSC 교통안전클럽

직접요인3: 운전자 욕구



빨리 운전해서 가려는 것,
서두르는 것, 경쟁 등의
동기는 교통사고로 연결



10

TSC 교통안전클럽

직접요인4: 운전자 경향성



- 위험에 빠질 마이너스 보다는 빨리 갈 수 있는 플러스를 선택
- 늦게 가는 마이너스 보다는 안전이라는 플러스를 선택



11

TTSC 교통안전클럽

직접요인5: 운전자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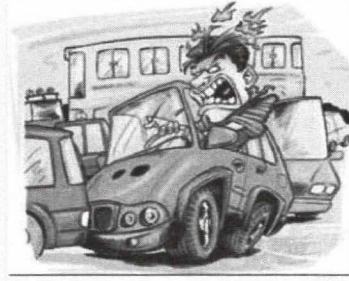


운전자의 숙달 정도와
기능도 교통사고 요인

12

TTSC 교통안전클럽

교통사고 간접요인



- 운행 전 차량점검 습관이 없다
- 안전운전 지식이 없다.
- 인간관계가 부족하다.

13

TISC 교통안전클럽

불쾌한 감정

- 교통정체가 되면 안달이 나서 경적을 울려댄다.
- 위반에 대한 경찰단속을 비난한다.
- 갑자기 차가 끼어들 때는 다시 그 차 앞으로 도로 끼어들어 복수한다.
- 대수롭지 않은 것에 운전에 대한 주의가 산만해 진다.
- 감정 폭발로 바른 판단력을 잃는다.
- 직장/ 가정에서 불쾌한 일을 난폭한 운전으로 보상받는다라는 생각
- 슬픔, 쇼크공포로 미신고 사고, 뺑소니 발생

14

TISC 교통안전클럽

해외 운전자 사례

■중국

- 사람마다 운전습관 제각기 임
- 양보하지 않음(새치기 보편화)
- 주차구역 주차선 무시
- 상향등 점등 운행
- 운전면허를 위한 3개 대학 졸업

■일본

- 양보의식 철저
- 전후좌우 주차선 맞춰서 주차
- 상향등은 먼저 가라는 양보의 신호

15

TTSC 교통안전클럽

단속횟수 늘면 운전태도 바뀔까?

- 교통단속이 운전 행태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침
- 성남시 주민 90,491명, 최근 8년간 단속에 관한 설문
 - 8년간 평균 1.1회 단속 됨
-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단속효과가 낮다.

교통사고발생	단속횟수
1회	2.4건
2회	3.9건
3~4회	5.2건

16

TTSC 교통안전클럽

범칙금의 올바른 사용

▪ 최근 4년 동안 교통범칙금 과태료 1.5배(2550억 원) 증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범칙금·과태료	6,379억	7,190억	7,996억	8,053억
교통시설개선사업투자	969억	414억	306억	229억

▪ 외국사례

- 일 본: 범칙금 전체 교통안전개선사업에 활용
- 프랑스: 범칙금 수입 일부를 교통안전프로그램에 사용

바람직한 운전태도

**100%
POSSIBLE**

- 100%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행동
- 리스크 테이킹 금지
- '급한 길도 돌아가라' 는 여유 있는 운전습관
- 진정한 베스트 드라이버는 다른 운전자 배려, 무사고 운전자

전방주시

-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 냥
- 교통사고 대부분은 잘 못 보기 때문
- ‘똑바로 보는 것’ 이 중요하다.
- ‘본다’ 고 하는 제원칙
- 운전이나 보행 시 주의

19

TISC 교통안전클럽

다른 차에 가까이 가지 말라

- 방어운전은 안전운전에 직접적으로 연결
- 인간은 실수하기 쉽다.
- 실천사항
 - 상대 차와의 거리는 고정적이지 않다.
 - 조심스러울 때는 운전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 앞차와의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운전을 한다.
 - 상대를 믿지 말라

20

TISC 교통안전클럽

감사합니다

강 순 봉
010-3750-9203

선진교통을 위한 우리의 자세

장 재 민

□ 국내교통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 교통의 한 수단인 자가용승용차가 교통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불과 30여년에 불과함
- 이러한 자가용승용차에 편리한 교통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와 주차장 건설, 신호운영 개선, 첨단 교통시스템의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소통위주의 교통정책이 수립되어 왔음
- 하지만 자가용승용차의 대중화로 인해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의 폐지, 운행감축 등으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제한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교통이란 무엇인가?

-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교통시스템 or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시스템

□ 현재 국내의 교통시스템 수준은?

-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서울 전 지역을 구석구석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요금도 저렴하며 환승시스템 구축, BRT, 최근 버스차내 혼잡도 등 정보제공
- 해외 관광객은 국내의 대중교통시스템에 극찬하는 실정임(한국의 대중교통을 부러워하는 미국 및 해외 네티즌들)

-> 하지만 국내교통은 선진교통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
교통사고 1위, 보행자 교통사고 1위,

□ 그렇다면 선진교통의 핵심은?

- 선진 교통문화의 핵심은 '시민의식'임
- 운전은 사람이 컨트롤 하는 만큼 운전자의 운전태도 또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
- 아무리 좋은 교통시스템을 갖추어도 그 것을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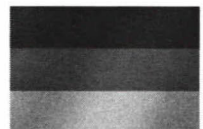
□ 국내의 교통문화?

- 자동차: 끼어들기, 신호위반, 급출발 및 급가속, 목적지 근처 주차, 꼬리물기 등
- 보행자: 무단횡단, 스마트폰 및 이어폰 착용 보행 등
- 대중교통: 버스먼저타기, 빠른 환승구간의 혼잡, 보행자간의 상충 등

□ 선진국의 교통환경

1. 세계 속 교통 문화 첫 번째,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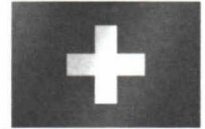
- 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독일! 독일의 교통 문화 특징은 '신고 문화'라고 할 수 있음. 독일 사람들의 생활화된 신고 정신이 안전한 교통 문화 형성에 큰 역할



- 예를 들어 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해결 시 가장 필요한 행위는 신고하는 것
- 이렇게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독일에서는 위반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게 진행.
- 나라의 엄격한 교통 규칙과, 사람들의 투철한 신고 문화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감

2. 세계 속 교통 문화 두 번째, 스위스!

- 스위스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지만 두 명에 한 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특히 스위스 '취리히'에는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관광명소로도 유명



- 하지만 다른 관광지에 비해 매연이나 경적 소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며 이는 사람을 우선시하고 환경을 지키려는 교통 문화 덕분
- 보행자가 서 있을 경우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려 주는 모습, 연료 절약 및 매연을 줄이기 위해 신호 대기 중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는 모습 등
- 스위스 사람들의 배려와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에서 비롯된 교통 문화

3. 세계 속 교통 문화 세 번째, 스페인!

- 교통안전 선진국답게 법규 위반에 대해 아주 강력한 대응함. 예를 들면 영화를 홍보하는 포스터나 뮤직비디오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 등도 단속 대상에 속함
- 실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포스터 속 남녀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화 제작사에 큰 벌금을 부과함
-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팝스타가 이동 중에 헬멧을 잠시 벗었다는 이유로도 벌금을 부과함
- 일반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나 공인들마저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



4. 세계 속 교통문화 네 번째, 일본!

- 일본은 대중교통 이용이 비싸고 복잡한 문제로 인해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는 나라 중 하나
- 자전거라고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주차 위반 딱지는 물론, 자전거 단속 단체에 의해 견
- 또 자전거 탑승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운전 단속 대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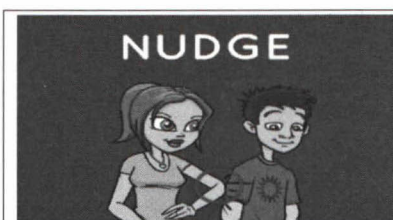


선진국의 다양한 교통 문화의 Key point ->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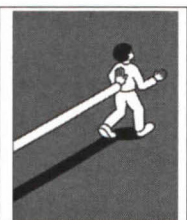
- '교통 사고, 나만 아니면 돼!' 보다 '안전 운전, 나라도 먼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하며, 하루 빨리 안전한 교통 문화가 설립될 필요가 있음
- "행복한 교통문화는 승객과 버스기사가 함께 만드는 것임.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 강요하기보다 함께 지킬 것은 지키고, 도울 것은 도와야 함"

□ 시민의식 제고방안

- 시민들에게 시민의식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행되기가 어려움
- 나만 지키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면 어때 등 대부분 지켜지기 어려움
- 넛지의 개념



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엿구리를)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유연하게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다 임
행동 변화에 있어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에
강제적인 지시나 인센티브 제공방식과는 구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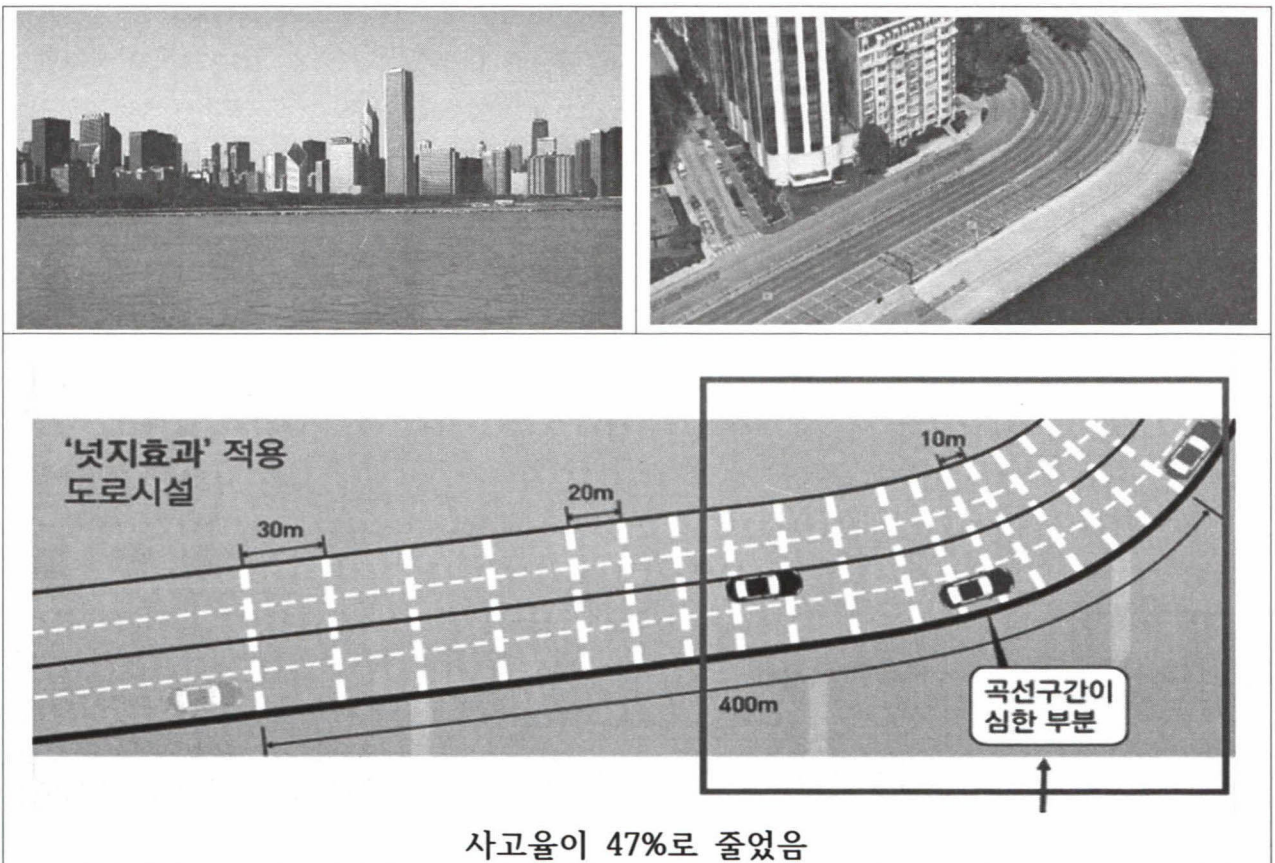


1. 넛지의 개념(일상생활)



2. 교통환경에 활용

- 세계에서 가장 경치 좋은 도심도로 가운데 시카고의 레이크 쇼어가 있으나 해안도로내의 급코너로 인해 사망사고율이 높음



□ 국내의 네티효과

	
유도선	줄임방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벨트

□ 네티의 개발

1) 택시 사망사고 감소

- 택시의 사망사고 가운데 새벽시간 비중이 높음. 이는 과속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남
- 택시속도를 규제하기 위해 각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다음과 같은 네티를 도입함
- 일정속도(100km)가 넘어가면 현재 144m당 100원의 요금부과에서 160m당 100원 요금부과.
- 100km이하로 주행하게 함으로 안전속도 유지로 사망사고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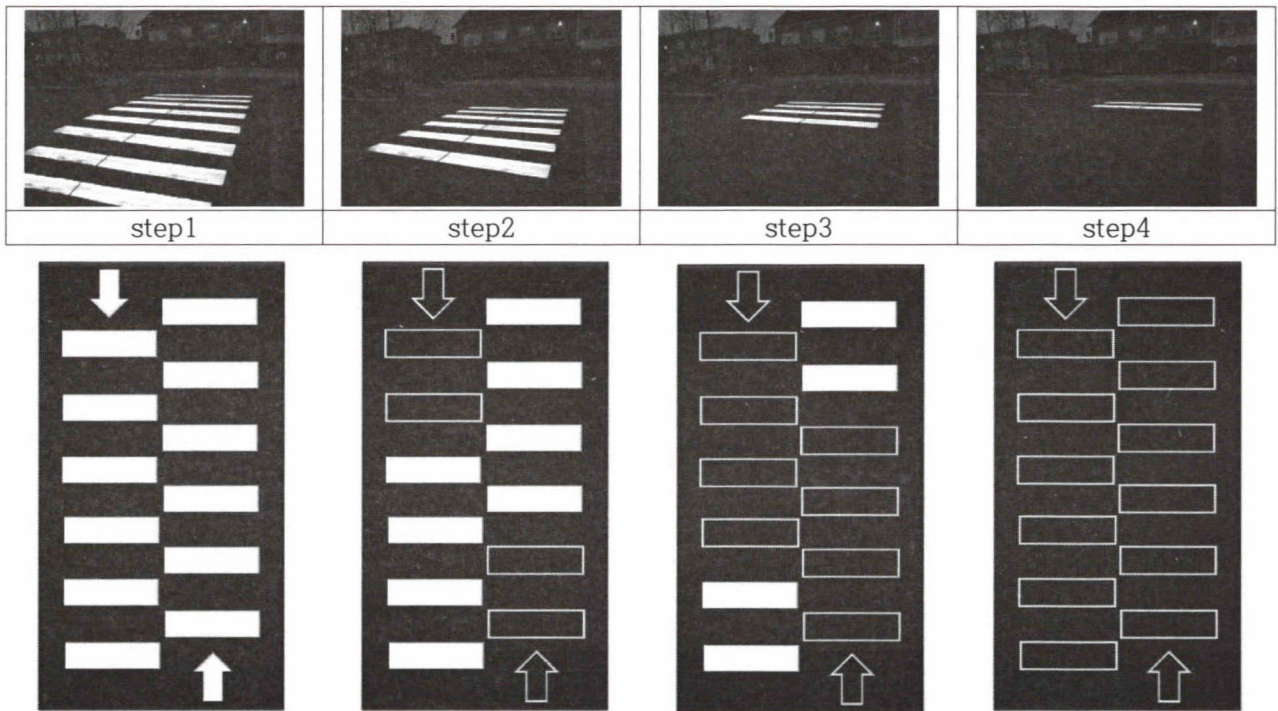
2) 스몸비 횡단보도 사고 방지

- 신호등의 서비스는 개선되고 있으나 스몸비족 증가 및 횡단 중 속도저하에 따라 위험요소가 부각 됨

신호등 현황			횡단중 보행특성	
기존형	개선형		스몸비족	
			속도저하	
일반(깜빡이)형	모래시계형	숫자표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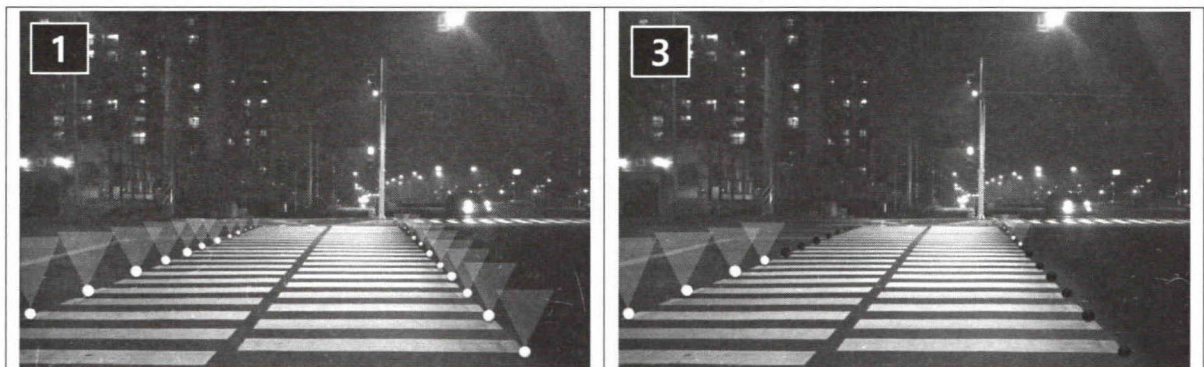
a. 대안 1

- 횡단보도 노면에 LED램프를 도입하여 녹색소등시간에 따라 램프가 단계적으로 소등되어 보행자 횡단속도를 반영한 녹색불 잔여시간 서비스를 제공함



b. 대안 2

- 횡단보도 양측면에 램프를 도입하여 녹색소등시간에 따라 램프가 단계적으로 소등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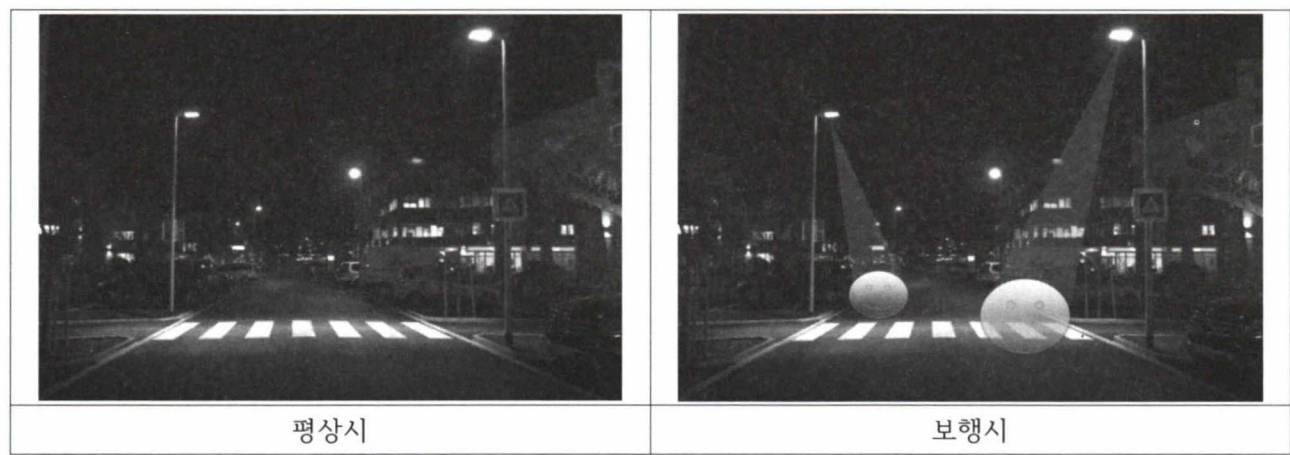
c. 대안 3

- 횡단보도 내에 퍼들램프를 도입하여 녹색소등시간을 알려주는 램프를 통해 보행자의 속도 및 안전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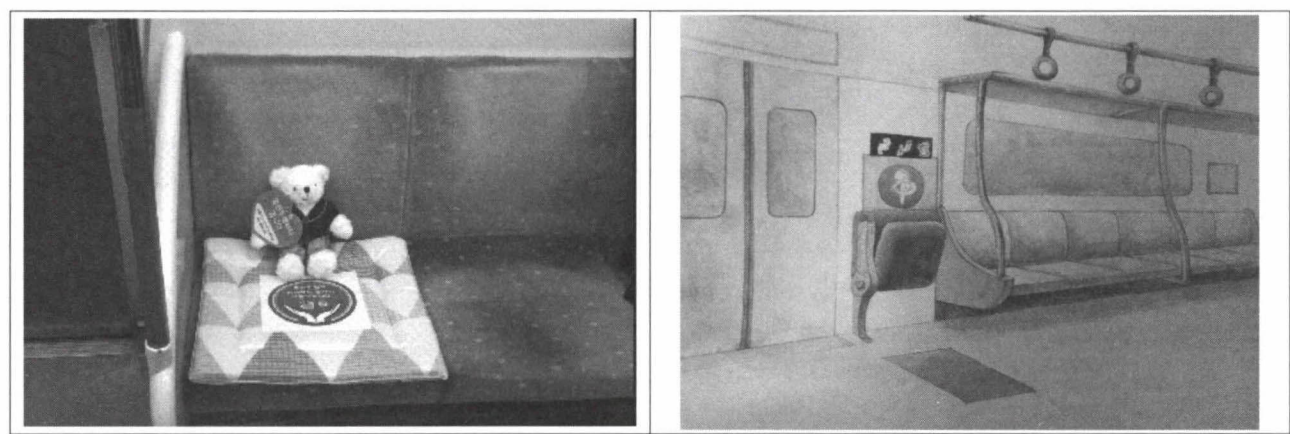


c. 대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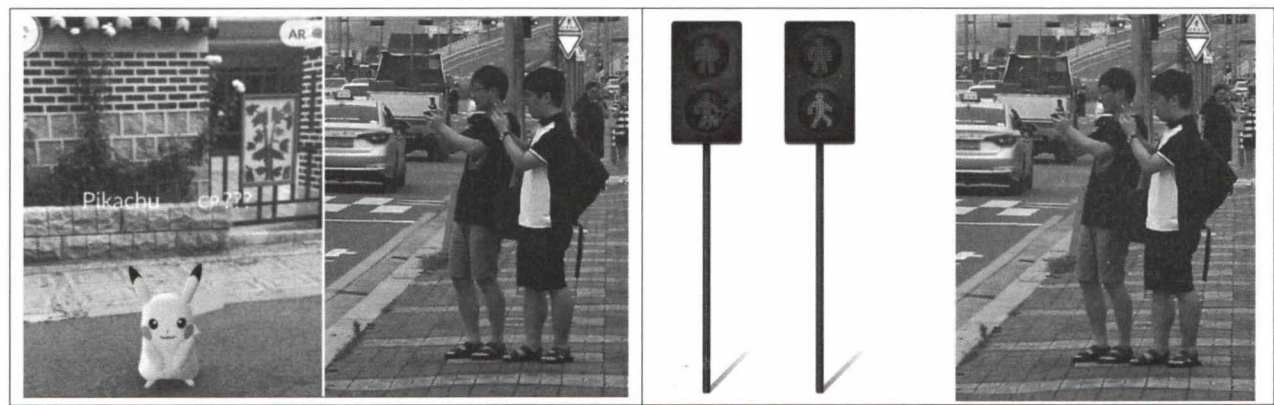
- 녹색불 점등 시 입체그림을 통한 운전자의 시인성 확대 및 보행자 안전도 향상



3) 임산부석 활용방안



4) 횡단보도 지킴이 마일리지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ICT환경변화에 따른
한국문화 관광택시 사업 다각화 방안**

김 종 주

Mobile Total Taxi App 구축

4차산업혁명 ICT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문화관광택시 사업다각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자 : Tnews 발행인 김종주 교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TAXI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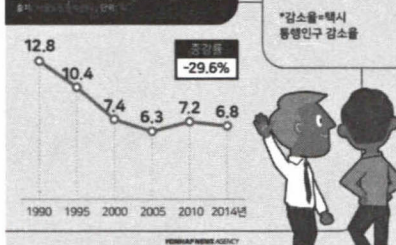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구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업체수 (업체)	운전자수 (명)	운전차수 (대)	업체수 (업체)	운전자수 (명)	운전차수 (대)
전국	1,898	88,933	115,639	164,817	254,550	280,256
	-	35.3%	-	64.7%	100.0%	-
경기도	194	10,488	17,055	26,372	36,870	43,427
	-	28.5%	-	71.5%	100.0%	-
	시 지역	188	10,279	16,845	25,060	36,439
	군 지역	6	119	210	312	431

<경기도 택시운전기사 근로시간>

구분	주정차 (hr, A)	평일정차 (hr, B)	거리 실적율(B/A)	영업시간	근로시간	매직률
법인택시	306.7	165.3	53.9%	5시간 41분	19시간 20분	35.5%
개인택시	210.0	110.1	52.4%	4시간 13분	14시간 05분	-
전체	228.3	120.0	52.5%	4시간 31분	15시간 10분	-

서울시 택시 수송분담률



숫자로 보는 택시기사의 노동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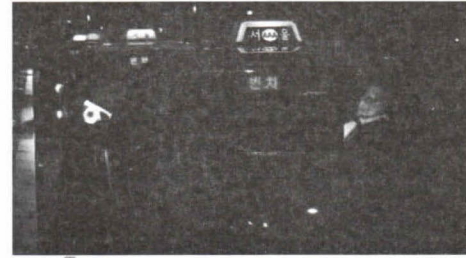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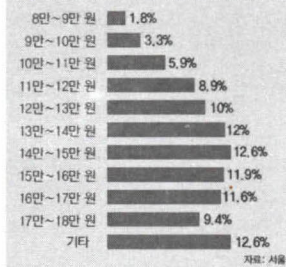
13만 3500원 하루 평균 사납금
157만 6000원 평균 월급(26.7일 출근 기준,
기본급+택시운행 수입(사납금 제외)-유류비 등
운행 경비)
73.5% 운전 때 휴식시간 1시간 미만 비율
75.1% 만성피로 느끼는 운전자 비율,
시력장애 63.0%, 수면장애 61.2%
2만 1838건 연간 법인·개인택시 교통사고
건수, 시내·전세·고속버스 사고는 7188건
(자료: 교통안전공단, '2016년 서울지역 택시노동자 실태조사')

TAXI ICT 발전환경

서울 법인택시-시내버스 운전사 근무환경 비교

	법인택시	시내버스
월 근무일수	26일	22일
1일 근로시간	10~11시간	7.2시간
월소득	187만 원	300만 원

법인택시운전자 하루 수입 평균 시급 10만800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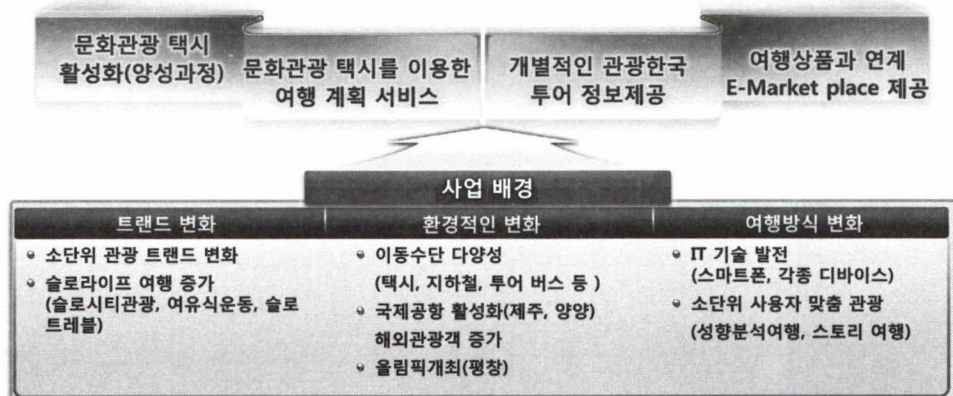


Mobile Total Taxi App을 통한 문화관광 e-Market place 구축사업

- 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검증된 한국대표브랜드 문화관광택시 서비스

국내, 해외 - 문화관광택시 서비스를 통한 효율적인 전국망 관광 투어 서비스 제공

문화관광택시
목적 및 배경



추진 1 문화관광택시 사업을 위한 Mobile Total Taxi App 개발

추진 2 문화관광택시 서비스를 위한 교육된 기사단체를 육성 활용한 안전하고 검증된 서비스

추진 3 문화관광택시 자격증(양성과정) 활성화

- 인성교육 / 기사교육
-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IT교육 (앱, 인터넷, VR)
- 문화유적, 문화 콘텐츠, 역사 교육/통역 및 외국어 교육/ 자격 검정 (갱신형)

추진 4 협력기관을 통한 마케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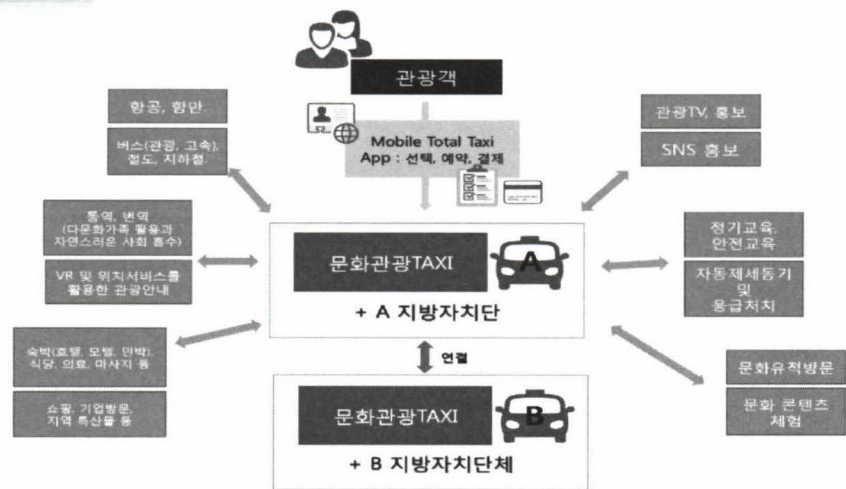
- 문화관광체육부, 한국관광공사,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단체, 교통안전공단, 언론, 방송, 자동차회사, 보험사, 여행사, 면세점, 호텔 및 숙박업 (모텔, 리조트, 콘도 등), 대학교 등.

서비스	내용
보라카이 픽업샌딩 에어택시	필리핀 아를란 주에 설립된 칼리보 공항 유일의 법인기업으로 철저한 운전요원 선발과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라카이의 픽업 및 샌딩을 법인 소유의 차량들만을 활용, 책임교육을 받은 기사들만이 서비스에 참여합니다. (이용방법: SNS,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과 결제)
대만관광택시	대만에서 운영 중인 관광운송 서비스로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 SNS를 통해 관광택시를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시간제 정액 요금으로 인접 관광지 여러 곳을 연계하여 다니며, 편의성이 높아 이용률이 높았으나 사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검증되지 않은 차량, 기사로 인한 피해 사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버 (Uber)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우버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택시를 잡는데 30분이나 걸려 짜증이 난 개발자가 창업을 결심하고 모든 운전자를 택시기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현재의 우버가 탄생했습니다.
카카오 택시 (Cacao Taxi):	가입된 택시와 손님을 모바일 App을 통해 연결시켜, 광고 및 카카오페이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전국망 교통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기존 콜택시와 차이점이 크지 않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 놓고도 빈 차를 발견하면 타버리거나 늦은 밤 시내 중심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로 사용자가 급증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택시	부산시와 택시업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으나 홍보 및 관리예산 부족, 외국어 서비스 부족, 오프라인에 치중된 서비스, 부산지역에 국한된 서비스로 타 지역과의 연계가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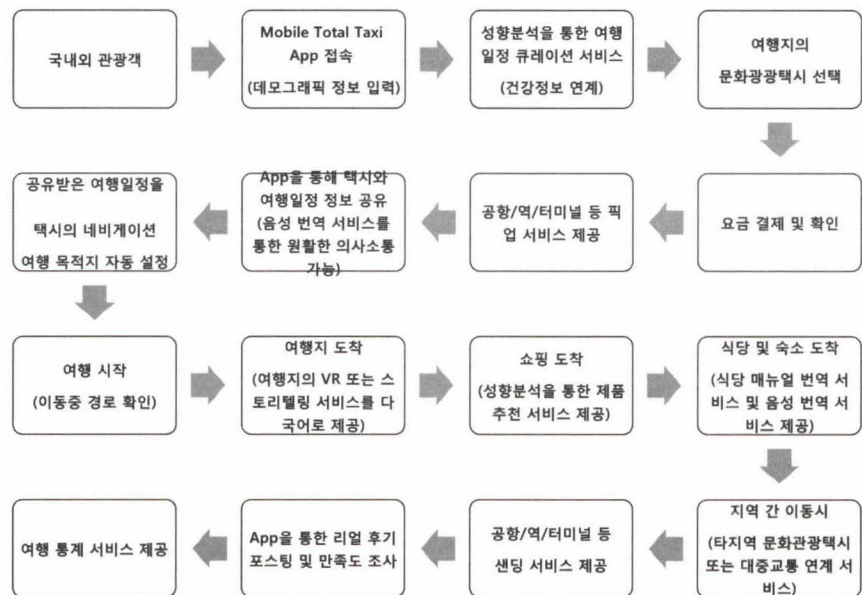
문화관광택시
주요 서비스



Mobile Total Taxi App 주요 서비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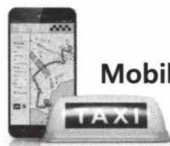
문화관광택시
여행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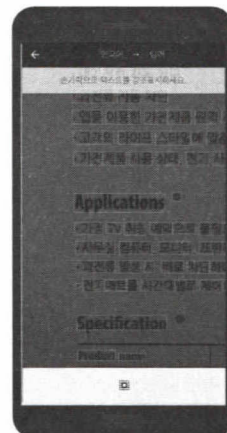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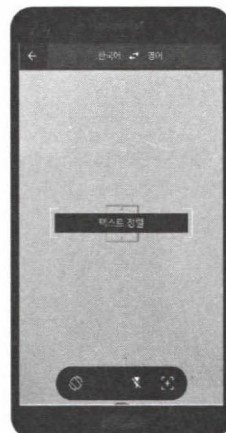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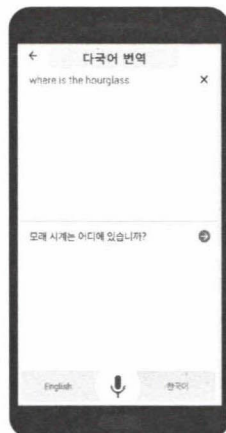


Mobile Total Taxi App

1.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2. 공공API(관광,교통,기상 등) 연동 컴포넌트 개발
3. 지도 및 네비게이션 API 연동 컴포넌트 개발
4. 스마트폰 건강정보(웨어러블기기) 연동 컴포넌트 개발
5. GPS, WiFi, Beacon센서 등 위치 소스 수집 및 관리 컴포넌트 개발
6. 여행명소 VR 콘텐츠(사진 또는 영상) 제작 및 서비스 개발
7. Text to Speech 구글 API를 이용한 다국어 스토리텔링 서비스 개발
8. 사진의 문자인식 다국어 번역 서비스 연동 개발
9. 다국어 음성 번역 서비스 연동 개발
10. 숙박API 연동 및 예약 서비스 개발
11. PG(지불 게이트웨이) 연동 컴포넌트 개발
12. SNA 분석을 통한 성향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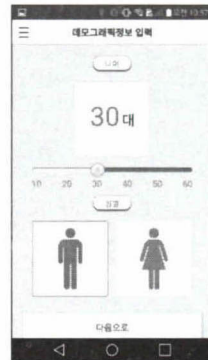


Mobile Total Taxi App 다국어 번역 서비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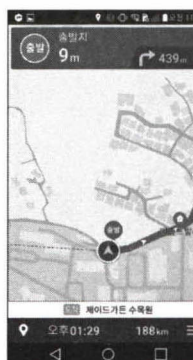




Mobile Total Taxi App □□□□ □□□ □□ □□□□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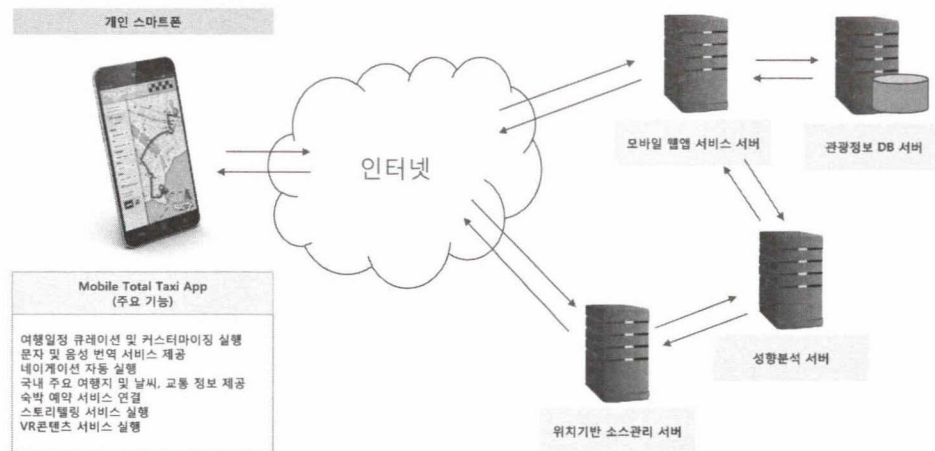


Mobile Total Taxi App 지도 및 네비게이션 연동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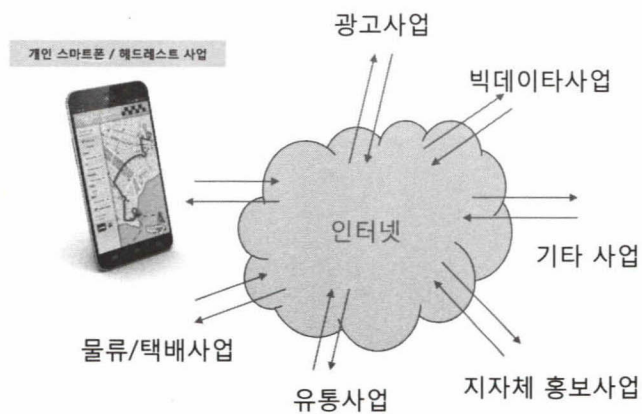




Mobile Total Taxi App 시스템 구성도 예시



수익사업 종류 및 협력업체 Mobile Total Taxi App





Mobile Total Taxi App

결 론

1. 택시기사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환경 개선 및 수입 증대
2. 택시기능을 사회적 기능에 맞게 다변화 - 100원택시, 행복택시, 업무용택시
3. 자율주행 택시가 시행되어도 운전기사는 꼭 필요한 가이드
4. 소득증가에 따른 국내외 여행객 증가
5.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관광객 증가(중국의 유커를 넘어선 싼커)
6. ICT 기술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는 개별여행객 전용 TTS(Taxi Travel System)개발
7.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개별관광객 교통수요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
(사례 : 개별관광객을 위한 숙박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및 활성화/민박,B&B)
8. 한국관광브랜드 가치 형성 => 안전함, 편리함, 친절함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